

※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자료에서 제시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다음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재무 정보)에 근거하여 보고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과 그 밖의 채권자에게 가장 유용할 정보의 유형을 식별하는 것이다.
- (나)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경제적 현상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 질적특성 간 절충이 필요할 수도 있다.
- (다) 보강적 질적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비반복적인 과정이다.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특성이 다른 질적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 (라)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 (마) 표현충실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인데, 이 맥락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 ① (가), (다)                      ② (나), (마)                      ③ (다), (마)
- ④ (가), (나), (라)              ⑤ (가), (다), (마)

2.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대한의 20x1년 재고자산(단일상품)에 관련된 자료이다. (주)대한의 20x1년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가중평균단가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 ₩10.9은 ₩11)하여 계산한다.

일자	적요	수량	매입단가
20x1. 1. 1.	기초재고	100개	₩100
20x1. 2. 1.	매입	300개	₩120
20x1. 3. 2.	매출	200개	
20x1. 7. 1.	매입	200개	₩150
20x1. 9. 15.	매출	150개	
20x1. 12. 31.	기말재고	250개	

- ①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계속기록법에 비하여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매출원가가 ₩2,950만큼 크다.
- ②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계속기록법에 비하여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당기순이익이 ₩4,250만큼 작다.
- ③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데 가중평균법에 비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기말재고자산이 ₩4,250만큼 작다.
- ④ 계속기록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데 가중평균법에 비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출원가가 ₩2,950만큼 크다.
- ⑤ 계속기록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데 가중평균법에 비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기순이익이 ₩2,950만큼 크다.

3.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대한은 재고자산에 대해 계속기록법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말에는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주)대한의 20x1년 재고자산(단일상품)에 관련된 자료이다.

- (주)대한의 20x1년 기초 상품 수량은 100개(단위원가 ₩200)이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20x1년 기초 잔액은 ₩2,000이다.
- (주)대한은 20x1년 3월 1일에 상품 500개(단위원가 ₩240)를 추가로 매입하고, 20x1년 7월 1일에 상품 300개를 판매하였다. 상품의 취득과 판매 과정에서 별도의 운반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 20x1년 12월 31일 현재 (주)대한이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의 총 수량은 80개이고, 실사를 통해 다음 사실을 발견하였다.

- (주)대한은 20x1년 10월 1일에 (주)민국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100개를 적송하였으며, 적송 시 발생한 운임은 없다. (주)민국은 20x1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이 중 80%의 상품을 판매하였다.
- (주)대한은 20x1년 11월 1일에 일정 기간 상품을 사용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주)만세에게 상품 50개를 발송하였으나, (주)만세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아직 매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 (주)대한은 20x1년 12월 1일에 상품 200개(단위원가 ₩300)를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입계약 하였는데, 해당 상품은 계약 당일에 선적되었으나 20x1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운송 중인 상태로 확인되었다.

- 적송품과 시송품에는 감모(분실, 도난 등)가 발생하지 않았다.
- (주)대한은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을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 20x1년 기말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200이다.

동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주)대한의 20x1년도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 ① ₩104,000                      ② ₩108,000                      ③ ₩110,000
- ④ ₩112,800                      ⑤ ₩114,000

4. (주)대한은 스마트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20x1년 3월 1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20x2년 8월 31일에 완료하였다. 해당 스마트공장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다. (주)대한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주)대한의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x1. 3. 1.	20x1. 9. 1.	20x2. 1. 1.	20x2. 4. 1.
공사비 지출액	₩1,200,000	₩2,100,000	₩900,000	₩1,200,000

- (주)대한은 20x1년 3월 1일에 ₩300,000의 정부보조금(상환의무 없음)을 수령하여 즉시 해당 스마트공장 신축공사에 모두 사용하였다.
- (주)대한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	차입금액	차입일	상환일	연 이자율
특정A	₩1,200,000	20x1. 3. 1.	20x2. 8. 31.	5%(단리)
일반B	₩2,400,000	20x1. 3. 1.	20x2. 6. 30.	5%(단리)
일반C	₩2,000,000	20x1. 7. 1.	20x2. 9. 30.	8%(단리)

- 특정차입금A 중 ₩300,000은 20x1년 3월 1일부터 20x1년 8월 31일까지 연 이자율 3%(단리)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
- (주)대한은 20x1년 6월 1일부터 20x1년 6월 30일까지 신축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는데, 해당 중단기간에도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모든 차입금과 정기예금은 매월 말 이자 지급(수취) 조건이다.

(주)대한이 20x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단,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고, 연평균 지출액, 이자 수익 및 이자비용은 모두 월할로 계산하며, 자본화이자율(%) 계산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예: 3.456%는 3.46%)한다.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① ₩81,500                      ② ₩153,410                      ③ ₩193,410
- ④ ₩206,770                      ⑤ ₩220,000

5. 다음은 (주)대한의 20x1년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이다.

· (주)대한의 20x1년 기초금액 대비 기말금액의 증감은 다음과 같다.

자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목	증가(감소)	계정과목	증가(감소)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	매입채무	₩100,000
매출채권(순액)	40,000	미지급금	150,000
재고자산(순액)	50,000	단기차입금	(100,000)
기계장치	300,000	자본금	-
감가상각누계액	-	이익잉여금	340,000

- (주)대한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500,000이다.
- (주)대한은 당기 중에 기계장치(취득원가 ₩500,000, 장부금액 ₩200,000)를 ₩250,000에 처분하였다. 당기에 취득한 기계장치 구입 대금 중 ₩150,000은 20x2년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주)대한은 기계 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고, 당기 미지급금의 증감은 기계장치의 취득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았다.
- (주)대한은 당기 중에 단기차입금 ₩200,000을 상환하였다.
- (주)대한의 당기 이익잉여금의 증감은 당기순이익과 현금배당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았다.
- (주)대한은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간접법으로 작성하며, 이자의 지급,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법인세 납부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당기 중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주)대한의 20x1년도 현금흐름표 상 투자활동순현금흐름과 재무활동 순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투자활동순현금흐름	재무활동순현금흐름
①	₩100,000 유출	₩760,000 유입
②	₩100,000 유출	₩260,000 유출
③	₩400,000 유출	₩760,000 유입
④	₩400,000 유출	₩260,000 유출
⑤	₩550,000 유출	₩160,000 유출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금흐름표 상 현금흐름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유입과 유출을 의미하는데, 투자자산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보고기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다.
- ② 현금흐름표는 다른 재무제표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순자산의 변화, 재무구조(유동성과 지급능력 포함),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과 기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③ 현금흐름정보는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 처리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을 제거하기 때문에 영업 성과에 대한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
- ④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구성하는 항목 간 이동은 영업활동, 투자 활동 및 재무활동의 일부가 아닌 현금관리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항목 간의 변동은 현금흐름에서 제외한다.
- ⑤ 역사적 현금흐름정보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대한 지표로 자주 사용된다. 또한 과거에 추정한 미래현금흐름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수익성과 순현금흐름 간의 관계 및 물가 변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7.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A(취득원가 ₩1,00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를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 하였다. (주)대한은 20x3년 1월 1일에 기계장치A와 관련하여 후속 원가 ₩200,000을 지출하였는데, 해당 후속 원가는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였다. 이로 인하여 잔존가치는 ₩50,000, 내용연수는 2년 연장될 것으로 추정을 변경하였다. 감가상각 방법은 20x3년 초부터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기계장치A의 회계처리가 (주)대한의 20x3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주)대한은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 ① ₩50,000 감소      ② ₩150,000 감소      ③ ₩160,000 감소
- ④ ₩250,000 감소      ⑤ ₩260,000 감소

8. (주)대한의 회계담당자는 20x2년도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모두 중요한 오류에 해당한다.

- (주)대한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면서 20x0년 및 20x1년 기말 재고자산을 다음과 같이 과대계상 또는 과소계상하였다.

20x0년	20x1년
₩150,000 과대계상	₩100,000 과소계상

- 과대계상 또는 과소계상된 재고자산은 그 다음 연도에 모두 판매되었고, 관련 매출은 모두 기록되었다.
-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2년치 임차료 ₩400,000을 미리 지급하면서 2년치 임차료 전액을 선급임차료로 기록하였는데, 20x2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선급임차료와 관련된 기말수정분개를 전부 누락하였다. 단, 연간 임차료는 동일하다.

위 오류사항에 대한 수정효과가 (주)대한의 20x2년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①	₩100,000 감소	₩300,000 감소
②	₩100,000 감소	₩300,000 증가
③	₩100,000 증가	₩300,000 감소
④	₩100,000 증가	₩100,000 감소
⑤	₩200,000 감소	₩100,000 감소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으로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는 거래 발생 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 방법은 발행 시 채택했던 방법과 일관되어야 한다.
- ② 뜻가능 금융상품을 금융부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해당 지분상품은 재분류일의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 ③ 전체가 부채로 인식된 주식에 지급되는 배당은 사채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인식하며, 금융부채 상환이나 차환과 관련하여 생기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지분상품 상환이나 차환은 자본의 변동으로 인식한다.
- ④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이며,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은 금융부채이다.
- ⑤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0. (주)대한은 (주)민국이 다음의 조건으로 발행한 사채를 20x1년 1월 1일에 액면가액으로 현금취득(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지 않음)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 액면금액: ₩1,000,000
-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 표시이자율: 연 10%(매년 12월 31일 지급)
- 사채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 연 10%

(주)대한은 20x1년 7월 1일에 사업모형을 변경하고 당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다. 동 사채의 일자별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 20x1년 7월 1일: ₩950,000
- 20x1년 12월 31일: ₩980,000
- 20x2년 1월 1일: ₩980,000
- 20x2년 12월 31일: ₩1,000,000

(주)대한의 동 사채와 관련한 회계처리가 20x1년도 및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과 20x1년 말 및 20x2년 말 재무상태표 상 자본에 표시하는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20x1년		20x2년	
	당기순이익	FVOCI 금융자산평가이익	당기순이익	FVOCI 금융자산평가이익
①	₩80,000 증가	₩20,000 감소	₩100,000 증가	₩20,000 증가
②	₩80,000 증가	₩20,000 감소	₩120,000 증가	₩20,000 증가
③	₩100,000 증가	₩20,000 감소	₩100,000 증가	₩20,000 감소
④	₩100,000 증가	₩20,000 감소	₩100,000 증가	₩20,000 증가
⑤	₩100,000 증가	₩20,000 감소	₩120,000 증가	₩20,000 감소

11.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주)민국에게 현금 ₩1,000,000(연 10% 표시이자율, 만기일 원리금 지급)을 1년간 대여하고 상각후원가측정(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만기일인 20x1년 12월 31일에 (주)민국은 동 금융자산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주)대한과 (주)민국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재협상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하였다.

-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로 연장(일시상환)
  - 표시이자율: 연 8%(매년 12월 31일 지급)
  - 만기 연장의 대가로 재협상일에 (주)민국이 (주)대한에게 수수료 ₩10,000을 지급

최초 대여시점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며, 변경시점 유사한 위험을 가진 채권의 시장이자율은 연 12%이다. 동 계약변경이 금융자산의 제거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충족하지 않는 경우, 동 계약변경이 (주)대한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할인율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12%	10%	12%
1년	0.9091	0.8929	0.9091	0.8929
2년	0.8264	0.7972	1.7355	1.6901
3년	0.7513	0.7118	2.4868	2.4019

	제거조건 충족	제거조건 미충족
①	₩34,760 감소	₩57,592 감소
②	₩57,592 감소	₩24,760 감소
③	₩57,592 감소	₩34,760 감소
④	₩67,592 감소	₩24,760 감소
⑤	₩67,592 감소	₩34,760 감소

12.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 ₩5,000,000에 해양구조물을 취득하였다. 해양구조물의 잔존가치는 없으며, 내용연수 10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대한은 해양구조물을 10년간 사용 후 이를 해체하여 원상복구 할 의무를 부담하며, 10년 후 복구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은 ₩500,000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복구비용은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며, 20x1년 1월 1일 현재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할 할인율은 연 5%로 추정하였다. 20x1년 말 (주)대한은 복구비용 예상 지출금액은 ₩1,000,000,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할 할인율은 연 8%로 추정을 변경하였다. (주)대한은 해양구조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며, 20x1년 말 현재 공정가치는 ₩4,900,000이다. (주)대한의 20x1년 말 복구충당부채 잔액은 얼마인가?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할인율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5%	8%
7년	0.7107	0.5835
8년	0.6768	0.5403
9년	0.6446	0.5003
10년	0.6139	0.4632

- ① ₩306,950

② ₩322,298

③ ₩463,200
- ④ ₩500,300

⑤ ₩644,600

13. (주)대한은 (주)민국에게 20x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채무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사채를 상각후원가측정(AC) 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 액면금액: ₩1,000,000
  -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 표시이자율: 연 3%(매년 12월 31일 지급)
  - 유효이자율: 연 5%
  -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8%	5%	8%
1년	0.9524	0.9259	0.9524	0.9259
2년	0.9070	0.8573	1.8594	1.7832
3년	0.8638	0.7938	2.7232	2.5770

(주)대한은 20x1년 12월 31일에 이자 ₩30,000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x2년 1월 1일에 동 사채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주)민국과 합의하였다.

- 만기일: 20x4년 12월 31일로 연장(일시상환)
  - 이자지급: ₩10,000(매년 12월 31일 지급)
  - 만기 상환금액: ₩950,000(이자 미포함)
  - 20x2년 1월 1일 시장이자율: 연 8%

동 사채의 조건변경 시 (주)대한이 인식할 금융부채 조건변경이익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① ₩67,692

② ₩96,277

③ ₩114,929
- ④ ₩143,201

⑤ ₩182,891

14.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액면 발행하였다.

- 액면금액: ₩1,000,000
-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
- 표시이자율: 연 2%(매년 12월 31일 지급)
- 발행일 현재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연 8%
- 만기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만기일에 액면금액의 109.74%를 지급
- 전환조건: 전환사채 발행시점부터 1개월 경과 후 만기시점까지 전환청구 가능
- 적용할 현재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2%	8%	2%	8%
1년	0.9804	0.9259	0.9804	0.9259
2년	0.9612	0.8573	1.9416	1.7832
3년	0.9423	0.7938	2.8839	2.5770

20x2년 1월 1일 (주)대한의 동 전환사채의 액면금액 60%가 보통주 60주 (주당 액면금액 ₩5,000)로 전환되었다. (주)대한은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행사된 부분만큼의 전환권대가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선택하였다. 전환시점에 (주)대한이 인식할 주식발행초과금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① ₩285,883                      ② ₩332,288                      ③ ₩358,440
- ④ ₩404,845                      ⑤ ₩632,288

15. 자본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거래는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며,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②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
- ③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자본거래의 거래원가와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④ 조건부발행보통주는 모든 필요조건이 충족된 날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 ⑤ 금융부채 조건의 재협상 결과 금융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소멸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지분상품을 측정한다.

16.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 1대를 취득하여 생산에 사용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8년이고 잔존가치는 존재하며, 잔존가치를 고려한 상각률을 사용하여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대한은 감가상각이 완료된 유형자산은 잔존가치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20x4년 말 현재 상기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2,401,000이며, (주)대한은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20x6년도에 감가상각비 ₩504,210을 인식하였다. 20x9년 1월 1일 (주)대한은 동 기계장치를 ₩750,000에 매각하였다. (주)대한이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20x9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한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얼마인가? 단, (주)대한은 유형자산에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 기계장치에 대한 정률법 상각률은 0.5보다 작다.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① ₩173,520 손실                      ② ₩73,543 손실                      ③ ₩0
- ④ ₩73,543 이익                      ⑤ ₩173,520 이익

17.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 ₩300,000의 정부보조금을 수취하여 유형자산을 ₩1,000,000에 취득하였다. (주)대한은 유형자산에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동 유형자산은 (주)대한의 유일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 (주)대한은 정부보조금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자산 차감법)으로 회계처리한다. 20x2년 7월 1일 (주)대한은 상기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처분이익 ₩12,000을 보고하였다.

만약 (주)대한이 동 유형자산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대신 이연수익으로 인식 후 당기손익에 인식하여 왔으며(이연수익법)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정부보조금수익 ₩240,000을 보고하였다면, 상기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주)대한이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얼마인가?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하며, (주)대한이 수취한 정부 보조금은 상환의무가 없다고 가정한다.

- ① ₩198,000 손실                      ② ₩168,000 손실                      ③ ₩138,000 손실
- ④ ₩168,000 이익                      ⑤ ₩198,000 이익

18. (주)대한은 종업원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하며, 퇴직급여는 종업원의 퇴직 전 최종 임금의 2%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종업원의 연간 임금은 매년 5%씩 상승하며, 연간 할인율은 10%로 가정한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화가 없을 때, 20x1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4년 후인 20x4년 12월 31일에 퇴직하는 종업원 A의 매 연도 말 확정급여채무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x1년	20x2년	20x3년	20x4년
연도 말 확정급여채무	₩20,874	₩?	₩75,771	₩?

위와 관련한 종업원 A의 확정급여채무 회계처리가 (주)대한의 20x3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종업원 A가 당초 예상보다 일찍 또는 늦게 퇴직할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정은 없으며, 사외적립자산 또한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① ₩16,604 감소      ② ₩20,874 감소      ③ ₩25,049 감소
- ④ ₩29,849 감소      ⑤ ₩35,360 감소

19.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시장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시장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 ②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가득된 지분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 ③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기준일 현재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을 때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지분상품을 내재가치로 최초 측정한다. 이후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 결제일에 내재가치를 재측정하고 내재가치 변동액은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한다.
- ④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함에 따라 인식하는 부채는 부여일과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⑤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이나 지분상품 발행으로 결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채요소(거래상대방의 현금결제요구권)와 자본요소(거래상대방의 지분상품결제요구권)가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20.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100개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동 주식선택권은 종업원이 앞으로 3년간 회사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0x1년 1월 1일 현재 (주)대한이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50이며, 동 주식선택권은 20x4년 1월 1일부터 행사할 수 있다. 각 연도의 퇴직 종업원 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실제 퇴직자 수	추가퇴직 예상자 수
20x1년	40명	60명
20x2년	30명	40명
20x3년	60명	-

주식선택권 부여일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주)대한은 20x1년 12월 31일에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하향 조정하였다. 행사가격을 하향 조정한 날에 (주)대한은 당초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즉, 행사가격 하향 조정을 고려하기 전의 공정가치)를 ₩50으로 추정하였고, 조정된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를 ₩80으로 추정하였다. 부여한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주)대한이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얼마인가?

- ① ₩2,000,000      ② ₩2,175,000      ③ ₩2,485,000
- ④ ₩2,500,000      ⑤ ₩2,675,000

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채결의 증분원가이다. 다만,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는 제외한다.
- ②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리스료 및 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 합계액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 ③ 단기리스에 대한 선택은 사용권이 관련되어 있는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한다.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선택은 리스별로 할 수 있다.
- ④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단,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리스이용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 ⑤ 리스제공자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그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한다.

22. 20x1년 1월 1일 (주)대한은 사용 중인 건물(장부금액 ₩1,200,000)을 (주)민국에게 현금 ₩2,000,000에 판매하였으며 이는 공정가치와 일치한다. 동 일자에 (주)대한은 (주)민국에게 판매한 건물을 10년 동안 리스하기로 계약하고, 고정리스료로 매년 말 ₩200,000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동 건물은 반환하는 조건이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의 추정잔존가치는 ₩400,000이며 (주)대한이 ₩300,000을 보증하였으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주)대한이 리스기간 종료일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금액은 없다. 판매일 현재 동 건물의 잔존내용연수는 15년이고,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잔존가치는 없다. (주)대한은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동 거래에 적용되는 내재이자율이 연 5%라고 할 때, (주)대한의 판매후리스 거래가 20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할인율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5%
10년	0.6139	7.7217
15년	0.4810	10.3797

- ① ₩12,387 증가      ② ₩51,541 감소      ③ ₩72,849 감소
- ④ ₩91,404 감소      ⑤ ₩112,849 감소

2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재매입약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업이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의무나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선도나 콜옵션)가 있다면, 고객은 자산을 통제하지 못한다.
- ② 기업이 자산을 원래 판매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다시 살 수 있거나 다시 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 ③ 고객이 요청하면 기업이 원래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의무(풋옵션)가 있는 경우에, 계약 개시 시점에 고객이 그 권리를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지 않다면, 이 약정을 반품권이 있는 제품의 판매처럼 회계처리한다.
- ④ 고객이 요청하면 기업이 원래 판매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의무(풋옵션)가 있는 경우에, 자산을 다시 사는 가격이 자산의 예상 시장가치보다 높다면 그 계약은 사실상 금융약정이다.
- ⑤ 고객이 요청하면 기업이 원래 판매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의무(풋옵션)가 있는 경우에, 자산을 다시 사는 가격이 자산의 예상 시장가치 이하이며 고객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지 않다면, 이 약정을 반품권이 있는 제품의 판매처럼 회계처리한다.

24. 20x1년 초 영업을 개시한 (주)대한의 법인세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x2년 중 세무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추가 설명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50,000	
별과금 및 과태료	2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60,000	20x2년 중 발생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20,000	20x1년 중 발생분 추인
정기예금 미수이자	(-)10,000	이자만 만기(20x3년) 수취
토지	(-)30,000	20x2년 중 ₩20,000에 취득한 토지를 20x2년 말 ₩50,000으로 재평가하였으며, 20x4년 중 매각할 예정임
토지 재평가잉여금	30,000	기타포괄손익 처리
과세소득	₩800,000	
· 20x1년 중 발생한 세무조정 사항은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발생이 유일하며, 이는 20x2년부터 3년간 균등 소멸된다.		
· 20x2년까지 법인세율은 20%이었으나, 20x2년 말 세법 개정으로 20x3년과 20x4년의 법인세율은 각각 25%와 30%로 입법 완료되었다.		
· (주)대한의 세무상 미사용 결손금 및 세액공제는 없으며, 일시적 차이에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다.		

(주)대한의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비용은 얼마인가?

- ① ₩139,500                      ② ₩142,500                      ③ ₩151,500
- ④ ₩154,000                      ⑤ ₩172,500

25. (주)대한의 20x1년 기초 유통보통주식수는 5,400주이며 20x1년도 당기 순이익은 ₩1,000,000이다. (주)대한의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x1년 7월 1일에 보통주 540주를 유상증자하였다. 동 유상증자는 기존의 모든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으로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주당 ₩4,000이며, 증자 직전 공정가치는 주당 ₩5,000이다.
· 20x1년 8월 1일에 액면금액 ₩3,000,000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신주인수권 1개당 보통주 1주를 취득(행사가가격 ₩1,500)하며, 상환할증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20x1년 10월 1일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금액 ₩1,800,000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다.
· 당기 보통주의 평균 시장가격은 주당 ₩2,400이며, (주)대한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비용은 ₩100,000이다.

(주)대한의 20x1년도 희석주당이익은 얼마인가? 단, 가중평균유통주식수는 월할로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① ₩145                              ② ₩161                              ③ ₩166
- ④ ₩177                              ⑤ ₩183



※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6번과 27번에 답하시오.

· (주)대한은 20x1년 초 (주)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80%를 ₩85,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취득일 현재 (주)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없다. (주)대한은 (주)민국에 대한 투자주식을 별도(개별)재무제표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다음은 (주)대한과 (주)민국의 20x1년 및 20x2년 별도(개별)자본변동표이다.

(주)대한		자본변동표			(단위: ₩)
구분	자본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합계	
20x1. 1. 1.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	70,000	6,000	30,000	100,000	6,000
당기순이익			24,000	24,000	
20x1. 12. 31.	70,000	6,000	54,000	130,000	
20x2. 1. 1.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	70,000	6,000	54,000	130,000	4,000
당기순이익		4,000	26,000	26,000	
20x2. 12. 31.	70,000	10,000	80,000	160,000	

(주)민국		자본변동표			(단위: ₩)
구분	자본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합계	
20x1. 1. 1. 당기순이익	50,000		40,000	90,000	10,000
20x1. 12. 31.	50,000		50,000	100,000	
20x2. 1. 1. 현금배당	50,000		50,000	100,000	(-)15,000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		5,000	(-)15,000	(-)15,000	5,000
당기순이익			25,000	25,000	
20x2. 12. 31.	50,000	5,000	60,000	115,000	

· 20x2년 12월 1일에 (주)민국은 (주)대한에게 장부금액 ₩2,500의 상품을 ₩1,000에 현금 판매하였으며, (주)대한은 동 상품(순실현가능가치 ₩2,000)을 20x2년 말 현재 보유 중이다.

· (주)민국은 20x2년 중 (주)만세의 보통주 1%를 취득하고 이를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만세는 (주)대한 및 (주)민국과 지배 종속 관계에 있지 않다. 한편 (주)민국은 20x2년 중 현금 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하였다.

· (주)대한이 별도(개별)재무제표에서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주식은 (주)민국에 대한 투자지분이 유일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26. 20x2년 말 (주)대한의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비지배지분은 각각 얼마인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비지배지분
①	₩4,000	₩22,800
②	₩4,000	₩23,000
③	₩4,000	₩23,200
④	₩14,000	₩22,800
⑤	₩14,000	₩23,200

27. (주)대한의 20x2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지배기업소유주 귀속당기순이익과 비지배지분귀속당기순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지배기업소유주귀속 당기순이익	비지배지분귀속 당기순이익
①	₩34,800	₩4,800
②	₩34,800	₩5,200
③	₩45,200	₩4,800
④	₩45,200	₩5,200
⑤	₩46,800	₩5,200

2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지배력 평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피투자자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투자자의 이익은 양(+)의 금액이거나, 부(-)의 금액 중 하나에만 한정되며, 둘 모두에 해당할 수는 없다.
- ②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고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자신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 ③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더라도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진다.
- ④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자신이 힘을 갖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자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은 고려한다.
- ⑤ 다른 기업들이 관련 활동의 지시에 참여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예: 유의적인 영향력)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방어권만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없으며, 따라서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29.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투자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 ② 공동영업자인 기업이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기업은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이라도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할 수 있다.
- ③ 약정의 자산과 부채를 별도기구에서 보유하도록 하는 공동약정은 공동기업이나 공동영업이 될 수 없다.
- ④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다.
- ⑤ 공동기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공정가치법으로 회계처리한다.

30. 20x1년 초 (주)대한은 보유 중인 (주)민국의 보통주 400주(총 발행주식의 40%)를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대한이 보유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은 (주)민국에 대한 투자지분이 유일하다. 20x1년 말 (주)대한은 보유하고 있는 (주)민국의 보통주 중 300주를 주당 ₩2,000(공정가치)에 처분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였고, 동 일자로 잔여 주식 100주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은 (주)대한의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자료이다.

- 20x1년 초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360,000이고, 이와 관련하여 자본에 인식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80,000(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채무상품에서 발생)이다.
- 20x1년 중 (주)민국의 순자산은 ₩500,000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80%는 당기순이익의 증가에 기인하며, 20%는 유형자산 재평가 잉여금 발생으로 증가하였다.
- (주)대한의 (주)민국에 대한 지분 취득 시점에 (주)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일치하였으며, (주)민국은 배당을 결의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상기 모든 거래가 (주)대한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 ① ₩110,000 증가      ② ₩240,000 증가      ③ ₩320,000 증가
- ④ ₩480,000 증가      ⑤ ₩520,000 증가

31. 다음은 (주)대한과 (주)민국에 대한 자료이다.

-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하여 (주)민국을 흡수합병하였다. 두 기업은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 아니며, 동 사업결합은 역취득이 아니다. 이전대가로 (주)대한은 (주)민국의 기존 주주에게 ₩1,380,000의 현금과 함께 보통주 100주(주당 액면금액 ₩5,000, 주당 공정가치 ₩10,000)를 발행하여 (주)민국의 주주들에게 지급하였다.
- 취득일 현재 (주)민국의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요약재무상태표		
20x1년 1월 1일 현재		
항목	장부금액	공정가치
현금	₩800,000	₩800,000
재고자산	600,000	600,000
유형자산(순액)	1,200,000	1,800,000
무형자산	800,000	800,000
자산 총계	₩3,400,000	
부채	₩2,000,000	₩1,800,000
보통주자본금	1,400,000	
부채 및 자본 총계	₩3,400,000	

- (주)대한은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담당부서의 일반관리원가 ₩100,000, 회계 자문수수료 ₩5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주)민국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세무기준액과 동일하다. (주)대한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30%이고, (주)민국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5%이다.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할 때, (주)대한이 취득일에 인식할 영업권은 얼마인가?

- ① ₩280,000                      ② ₩300,000                      ③ ₩380,000
- ④ ₩420,000                      ⑤ ₩570,000

3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른 조건부 대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건부 대가는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의 일부로서 취득자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 ②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한다.
- ③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이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이 아닌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이나 당기손익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 ④ 취득일 후에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취득일에 존재한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취득일 후에 추가로 입수한 정보에 따른 것이라면,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으로 보고 회계처리한다.
- ⑤ 조건부 대가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이전대가를 돌려받는 권리를 취득자에게 부여할 수도 있다.

33. (주)대한의 기능통화는 원화(₩)이다.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 외화 표시 채무상품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동 채무상품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액면금액: \$2,000		
· 취득가액: \$1,850		
· 시장이자율: 연 10%		
· 표시이자율: 연 7%(매년 말 현금으로 이자 수령)		
· 20x1년 말 공정가치: \$1,900		
· 환율 정보(₩/\$)		
20x1. 1. 1.	20x1. 12. 31.	20x1년 평균
₩1,350	₩1,400	₩1,370

동 채무상품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주)대한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단, 20x1년 중 환율의 유의한 변동은 없었다.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이익
①	₩351,500 증가	₩7,000 증가
②	₩155,500 증가	₩105,050 증가
③	₩155,500 증가	₩7,000 증가
④	₩351,500 감소	₩105,050 감소
⑤	₩351,500 증가	₩105,050 증가

34.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26,000에 취득한 지분상품을 기타포괄 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대한은 동 지분상품의 시가 하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도계약 체결일: 20x1년 1월 1일		
· 계약기간: 36개월(20x1년 1월 1일~20x3년 12월 31일)		
· 계약조건: 금융자산을 ₩25,000(만기 선도가격)에 매도		
·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선도가격		
일자	공정가치	선도가격
20x1. 1. 1.	₩26,000	₩25,000(만기 36개월)
20x1. 12. 31.	24,500	23,600(만기 24개월)
20x2. 12. 31.	22,700	22,100(만기 12개월)
20x3. 12. 31.	21,000	

상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주)대한의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현재가치 평가는 고려하지 않고, 위험 회피회계 적용 요건은 충족되었다.

- ① 당기순이익 ₩400 감소
- ② 당기순이익 ₩300 감소
- ③ 당기순이익 ₩300 증가
- ④ 기타포괄이익 ₩400 감소
- ⑤ 기타포괄이익 ₩300 감소

35. (주)대한은 ₩/¥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도계약 체결일: 20x1년 7월 1일		
· 계약기간: 12개월(20x1년 7월 1일~20x2년 6월 30일)		
· 계약조건: ¥100,000을 ¥1당 ₩9.5의 선도환율로 매도		
· 환율 정보		
일자	현물 환율(₩/¥)	통화선도환율(₩/¥)
20x1. 7. 1.	₩9.6	₩9.5(만기 12개월)
20x1. 12. 31.	10.0	9.9(만기 6개월)
20x2. 6. 30.	9.4	

상기 통화선도계약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가치 평가는 고려하지 않으며, 20x2년 6월 30일 통화선도 거래는 계약대로 이행되었다고 가정한다.

- ①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파생상품 평가손실은 ₩40,000이다.
- ② 20x1년 말 재무상태표의 파생상품부채 잔액은 ₩50,000이다.
- ③ 20x2년 통화선도계약 만기일(6월 30일)의 재무상태표 상 현금 잔액은 ₩10,000이다.
- ④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파생상품 평가이익은 ₩50,000이다.
- ⑤ 20x2년 통화선도계약 만기일(6월 30일)의 재무상태표 상 파생 상품자산 잔액은 ₩0이다.

36.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가 국가회계와 연계되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 과학적인 관리 기법 등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관리한다.
- ③ 「국가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 중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지방회계법」상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국가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에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관리 운용보고서 및 물품관리운용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7.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산은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하고, 부채는 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 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 ② 국가의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수익은 국세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비용은 국세환급금, 이전비용 및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③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④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운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⑤ 현금흐름표 상 운영활동의 경우에는 현금의 유입은 원천별로, 현금의 유출은 용도별로 각각 분류하는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8.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회계실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말하며,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를 소관 중앙관서별로 합산한 후 국가회계실체 간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회계실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말하며, 개별 회계실체, 유형별 회계실체, 통합 회계실체로 구분한다.
- ③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모든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중앙관서 간 내부거래 제거, 국고금회계의 통합,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의 조정,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 조정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3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국가회계예규에서 설명하는 수익과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거나 수익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유입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 ②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 ③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신고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④ 국세에 대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해당 국세의 수익인식시기가 도래한 때 본세에 포함하여 국세수익으로 인식한다.
- ⑤ 국세를 물납받은 경우 취득한 부동산과 증권 등의 공정가액이 아닌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국가가 고지한 금액을 국세수익으로 인식한다.

40. 다음은 중앙관서 A부처의 20x2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이다. 아래 거래 외의 다른 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재정상태표			
A부처		20x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항목	장부금액	항목	장부금액
투자증권	5,000	차입금	10,000
정부출자금	9,000	국고채무부담행위액	3,500
토지	3,000	부채계	13,500
무형자산	4,000		
재고자산	1,500	순자산계	9,000
자산계	22,500	부채와순자산계	22,500

- 20x2년도에 장부가액 ₩1,000, 공정가액 ₩2,500인 입목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취득하였다.
- 20x2년 말 토지의 공정가액은 ₩9,000으로 장부가액과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재평가를 수행하였다.
- 20x2년 말 투자증권의 공정가액은 ₩8,000이다.
- 20x2년 말 정부출자금의 공정가액은 ₩13,000이다.
- 20x1년 초에 ₩5,000에 취득한 무형자산(내용연수 5년)의 20x2년 말 공정가액은 ₩6,000이다.
- 20x2년 말 재고자산의 시가는 ₩2,000이다.

20x2년 말 중앙관서 A부처의 재정상태표 상 순자산은 얼마인가?

- ① ₩15,000                      ② ₩18,000                      ③ ₩18,500
- ④ ₩21,000                      ⑤ ₩22,000

41. ㈜대한은 반도체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20x1년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재료	재공품
기초금액	₩15,000	₩10,000
기말금액	₩20,000	₩30,000

20x1년 동안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노무원가는 ₩50,000으로 공장에서 발생한 것이며, 노무원가의 60%는 생산직 종업원의 임금이다.</li><li>· 제조경비는 ₩40,000이며, 전액 제조간접원가이다.</li><li>· 재료 구입액은 ₩35,000, 직접재료원가는 ₩25,000이다.</li></ul>
---

㈜대한의 20x1년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얼마인가?

- ① ₩90,000                      ② ₩95,000                      ③ ₩100,000
- ④ ₩105,000                      ⑤ ₩110,000

42. ㈜대한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0x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은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 ㈜대한의 20x1년 직접재료 구입액은 ₩120,000이며, 20x1년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직접재료	재공품
기말금액	₩20,000	₩50,000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직접노무원가는 ₩100,000이며, 직접노무시간당 임률은 ₩50이다. 기말재공품에는 직접재료원가 ₩20,000, 직접노무원가 ₩20,000 그리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10,000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의 20x1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가 ₩30,000 과소배부일 경우,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얼마인가?

- ① ₩20,000                      ② ₩80,000                      ③ ₩100,000
- ④ ₩110,000                      ⑤ ₩120,000

43. ㈜대한은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여 단일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생산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공정의 60% 시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정상공손 허용수준은 합격품의 5%이다. 정상공손원가는 합격품에 가산되고, 비정상공손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된다. 공손품은 모두 폐기되며, 공손품의 처분가치는 없다. 다음은 20x1년 3월 공정의 생산 및 원가 자료이다. 단, 괄호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의 완성도를 의미한다.

구분	물량단위	직접재료원가	전환원가
기초재공품	2,000(80%)	₩20,000	₩30,000
당월 생산착수수량	22,000		
당월 생산착수완성품	18,000		
기말재공품	2,000(70%)		

㈜대한의 20x1년 3월 중 직접재료원가는 ₩88,000, 전환원가는 ₩210,000이 발생하였다. ㈜대한의 20x1년 3월의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기말재공품원가는 얼마인가?

- ① ₩22,000                      ② ₩23,000                      ③ ₩24,000
- ④ ₩25,000                      ⑤ ₩26,000

44. ㈜대한은 표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재료는 생산공정의 50% 시점에 전량 투입된다. 다음은 20x1년 공정의 생산 및 원가 자료이다. 단, 괄호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의 완성도를 의미한다.

구분	물량단위
기초재공품	3,000(20%)
당기완성품	9,000
기말재공품	2,000(40%)

공손품은 1,000단위가 발생하였으며, 공정의 80% 시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공손품은 모두 비정상공손으로 간주하며 처분가치는 없다. 회사는 비정상공손원가를 계산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기에 직접재료를 30,000kg(kg당 구입가격 ₩15) 구입하였으며, 25,000kg을 공정에 투입하였다.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는 ₩125,000 불리, 직접재료원가 수량차이(능률차이)는 ₩50,000 유리일 경우, 제품 단위당 직접재료 표준원가는 얼마인가? 단, 전기와 당기의 표준원가는 동일하다.

- ① ₩15                      ② ₩20                      ③ ₩25
- ④ ₩30                      ⑤ ₩35

45. ㈜대한은 제품 A, 제품 B, 제품 C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제품 A	제품 B	제품 C
판매량 배합비율	50%	30%	20%
단위당 공헌이익	₩500	₩400	₩150
손익분기점 판매량	1,150단위	690단위	460단위

㈜대한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제품 C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품 C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할 경우, 제품 A와 제품 B의 판매량 배합비율이 각각 60%와 40%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품 C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더라도 ㈜대한의 고정원가 총액, 제품 A와 제품 B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변하지 않는다. 제품 C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할 경우, 제품 A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 ① 1,200단위                      ② 1,300단위                      ③ 1,400단위
- ④ 1,500단위                      ⑤ 1,600단위

46. ㈜대한은 A, B, C 세 종류의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제품 A, 제품 B, 그리고 제품 C 각각에 대한 연간최대조업도 20,000단위의 활동 수준에서 예상되는 20x1년도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제품 A	제품 B	제품 C
단위당 판매가격	₩240	₩160	₩200
단위당 변동원가	₩140	₩80	₩100
단위당 고정원가: 추적가능 고정제조간접원가 공통고정원가	₩40 ₩30	₩40 ₩30	₩40 ₩20
연간최대조업도	20,000단위	20,000단위	20,000단위

제품별 추적가능 고정제조간접원가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면 회피가능하나, 공통고정원가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해도 계속해서 발생한다. ㈜대한은 20x1년 초에 향후 1년 동안 제품 A 16,000단위, 제품 B 12,000단위, 제품 C 14,000단위를 생산 및 판매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여 20x1년에 제품 B를 생산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품 B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20x1년도 제품 A와 제품 C의 연간 판매량은 원래 계획한 수량보다 각각 2,000단위와 3,000단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품 B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대한의 20x1년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 ① ₩340,000 증가                      ② ₩345,000 증가                      ③ ₩350,000 증가
- ④ ₩355,000 증가                      ⑤ ₩360,000 증가

47. 다음 중 내부대체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급부문에서 유희생산능력이 없고 외부시장이 완전경쟁적일 경우에는 제품의 시장가격이 기업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내부대체가격이 될 수 있다.
- ② 전부원가기준으로 대체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 전체의 최적의사결정과 각 사업부의 최적의사결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③ 원가를 기준으로 대체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준원가나 예산정보를 사용해서 대체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을 달성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원가절감에 대한 동기부여는 가능하나 성과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대체가격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목표 일치성, 성과평가, 자율성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 ⑤ 내부대체가격은 공급부문과 구매부문의 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각 부문의 자율적인 내부대체가격의 결정은 기업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8. ㈜대한은 상호대체가 가능한 두 종류의 노무등급인 숙련공과 미숙련공을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이 회사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여 직접노무원가에 대해 매월 실제원가와 표준원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20x1년 3월의 각 노무등급별 표준직접노무원가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표준시간	표준임률
숙련공	2시간	₩?
미숙련공	3시간	₩5

㈜대한은 20x1년 3월에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한 직접노무시간은 숙련공이 300시간(실제 임률 ₩17)이었으며, 미숙련공은 400시간(실제 임률 ₩8)이었다. ㈜대한이 20x1년 3월의 직접노무원가에 대해 실제원가와 표준원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접노무원가의 배합차이는 ₩200 불리, 수율차이는 ₩450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 20x1년 3월 미숙련공의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노무시간은 얼마인가?

- ① 300시간
- ② 350시간
- ③ 400시간
- ④ 450시간
- ⑤ 750시간

49. 전략적 원가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균형성과표는 재무적인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성과측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성과측정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 ② 균형성과표는 조직의 수익성을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하기 때문에 4가지 관점의 성과지표 중에서 재무적인 성과지표를 가장 중시한다.
- ③ 외부실패원가는 품질원가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원가이며, 예방원가의 지출을 통해서 품질개선효과가 나타나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원가이다.
- ④ 가치사슬원가계산은 생산 전 활동과 관련된 원가와 생산 후 활동과 관련된 원가를 구분할 수 있다.
- ⑤ 목표원가계산은 제조단계에서 원가절감을 강조하는 반면, 카이젠 원가계산은 제품개발 및 설계단계에서의 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춘다.

50. ㈜대한은 단일제품 A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으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의 20x1년 3월 초 실제 재고는 제품은 4,000단위, 재공품은 3,000단위(전환원가 완성도 50%)이다. ㈜대한의 20x1년 3월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3월 중 제품 A를 10,000단위 판매할 계획이다.
- 3월 말 목표 재고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	재공품	제품
2,000kg	1,000단위(전환원가 완성도 40%)	2,000단위

-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제조과정에서 공손과 감손 등으로 인한 물량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 제품 A 1단위 생산에 직접재료 2kg이 소요된다.

㈜대한의 20x1년 3월 직접재료 예산 구입량이 10,000kg일 경우, 3월 초 직접재료 재고량(kg)은 얼마인가?

- ① 2,000kg
- ② 2,500kg
- ③ 3,000kg
- ④ 3,500kg
- ⑤ 4,000kg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